

# “5년 만의 전시...진한 감동·울림있는 자리 됐으면”

송필용 작가, 오늘부터 11월23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서 ‘흐름’ 전  
‘역사’ 시리즈 등 대작 30여점 선보



송필용 작 ‘역사’

“지난 2015년 이후 광주에서 5년만에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종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역사’와 ‘흐름-소쇄’ 시리즈 등으로 다양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전시가 지역민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 대표 중견작가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물과 땅 등 자연의 모습을 빌어 깊은 사색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는 송필용 작가.

송 작가가 오랜만에 지역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송 작가는 3일부터 11월23일까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흐름-흐르는 물의 기운에서 우리 역사의 원리를 찾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송 작가가 지난 2015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진행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송 작가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 대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송 작가가 그동안 작품에 매진하며 쏟은 열정들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특히 송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역사’, ‘흐름-소쇄’ 시리즈 등을 통해 역사의 질곡을 직접 겪은 한 인간이 빛을 예술적 산물을 다채로운 작품 양상으로 풀어낸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작가가 느낀 물의 기운은 근작들에서 더욱 농익은 붓질로 거침없는 힘을 발산해낸다. 작품에 내재된 역사의 흐름을 재인식해보며 그 특별한 아름다운 향연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송 작가는 최근작 ‘역사’ 시리즈에서 폭포수를 맞으며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형상화한다. 이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바위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며, 우리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흐름-소쇄’ 시리즈의 폭포는 오랜 시간 내 자신과의 호흡에서 육화된 존재로, ‘공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청아한 울림과 영혼의 소리’를 담아낸다.

송 작가의 역사에 대한 남다른 시선은 그가 젊은 시절 온몸으로 겪었던 무수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비롯됐다.

그가 대학 4학년에 겪은 5·18은 이 땅의 역사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였다. 시대의 아픔을 묵과할 수 없었던 청년은 우리 땅의 역사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됐고,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려 전라도 땅 곳곳을 누비며 그 근원적 모습을 찾아보려 했다. 1980년대 말 ‘땅의 역사’ 시리즈를 시작으로 전라도 자연을 근간으로 한 작품들은 당시 민중미술의 형식과는 또 다른 작가만의 시선으로 그려진 민초들이 삶의 본질적 모습이었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답사는 전국 곳곳으로 뻗어 나갔고, 동학혁명, 일제강점기, 6·25, 5·18 등 우리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그림 안에 깊게 새겨졌다.

이런 역사인식은 1990년대 말 금강산 기행이 가능해지면 서 수차례 다녀온 답사로 그만의 작품세계가 더욱 풍부해졌다. 금강산의 산봉우리와 폭포, 산과 바다의 조화, 기암괴석 사이 거침없는 폭포의 기운 등은 그가 우리 자연을 보여주는 더욱 특별하고도 확고한 시선을 제시해주고 있다.

송 작가는 “오랜만에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진한 감동과 울림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작품을 통해 우리 삶 속 내면의 아픔과 찌꺼기 등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9월의 시작, 우리 가락 국악과 함께

국악상설공연, 오늘부터 공연마루서  
창극·창작국악·타악 퍼포먼스 등 다채

광주국악상설공연의 이달 공연이 3일부터 선보인다.

창극, 창작국악,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국악의 매력이 펼쳐진다.

첫 무대는 3일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의 흥겨운 가락으로 채워진다. 이날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는 김광복 피리명인의 ‘팔도민요메들리’ 연주, 자진모리 장단에 시나위 반주에 맞춰 추는 ‘살풀이’, 강민이 명창이 들려주는 신관 변사또 가남원에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한 춘향가 중 ‘신면맞이’를 선보인다. 이어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의 연주로 춘향가 중 ‘산세’ ‘사랑가’, 흥보가 중 ‘박타령’ 등 우리 소리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곡들로 채워진다.

4일은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광역시 제18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황승욱 명인과 제자들로 구성된 25현가야금병창 ‘새타령’으로 문을 연다. 달밤에 스치는 대나무 향기를 표현한 ‘무용을 위한 죽향풍월’, 작곡가 배창희 씨가 창작한 가야금병창 ‘아리랑 광주’, 1965년 북한에서 작곡된 소금협주곡 ‘초소의 봄’, 아리랑을 재즈적으로 해석한 ‘컨템포러리 아리랑’ 등을 선사한다. 5일에 이어 7일은 광주시립창극단이



광주국악상설공연의 이달 공연이 3일부터 선보인다. 사진은 도드리 공연 모습.

공연을 꾸민다. 5일은 향발이라는 작은 제금을 양손에 마주 들고 치면서 추는 춤 ‘향발무’를 시작으로 가야금 병창, 대금과 아쟁 병주, 심봉사와 땡덕 어머미가 맹인잔치에 가는 길을 해학과 풍자로 묘사한 단막극 ‘심청가 중 땡파전’, 팽과리·장구·북·징 네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앉은반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7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부자가 된 흥보의 집에 찾아가 화초장을 얻어오는 놀보의 모습을 담은 단막극 ‘화초장’, 쇠와 장구·북·징이 어우러져 연주하는 ‘판굿’, 사자탈을 쓰고 온갖 재주를 부리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사자춤’을 선보이며 대미는 강강술래로 장식한다.

6일은 전통문화연구회 열쑤가 흥나는 공연을 갖는다. 1992년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창단된 타악 퍼포먼스팀 열쑤는 이번 무대에서 모듬북, 대북, 태평소로 자연의 성장과 소멸을 표현한 ‘타고’를 시작으로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삼도설장구를 새롭게 재창작한 ‘장구바이러스’, ‘진도북춤’,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소리로 표현한 ‘모듬북과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공연은 매일 오후 5시(일요일과 월요일 휴관) 서구 차평동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된다. 전석 무료.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문의 062-613-8379.

김혜진/기자 hj@srb.co.kr

## 유려한 선율이 흐르는 클래식 무대

카메라타 전남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는 5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서

가을밤을 선율로 수놓을 다양한 매력의 클래식 무대가 마련된다.

카메라타 전남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가 5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나의 조국, 그리고 가을’을 주제로 조국에 대한 애정을 담은 민족주의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스페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제2악장,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과 한경진 전남대 교수의 관현악곡 ‘오래된 노래(Nostalgic melody)’가 초연된다. 이어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 바리톤 공병우(전남대 교수), 소프라노 윤현정,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이 노래한다. 이어 치마로사의 ‘두 대의 플룻을 위한 협주곡’을 플룻 변성호(광신대 교수)와 하중수가 협연



해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만든다.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박인욱 교수가 이끄는 카메라타 전남은 고전주의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와 국내 정상급 연주자와의 협연을 통해 고급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 도모를 추구한다. 지역 시립예술단과의 협연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과 젊은 연주자들에게 연주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공헌형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은 전석 초대. 문의 010-3377-6906.

김혜진/기자 hj@srb.co.kr

## ACC,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 공모 세대 공감·문화소외계층 등 3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2019 ACC 오픈 아카데미-지역 참여형 프로그램’ 공모 참여자를 모집한다.

ACC는 ‘2019 ACC 오픈 아카데미-지역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나 개인을 공모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주체를 발굴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개 분야 5개 단체를 모집한다.

시민 네트워크 형성 및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세대 공감 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세대 공감 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세대 공감 워크숍’,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탈북이주민 등이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워크숍’ 세분야다. 공모기간은 24일까지이며 선정단체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 하반기 문화누리카드 알차게

광주지역 문화누리카드 전용가맹점이 올해 상반기에만 68곳이 늘어나는 등 사용처가 확대 활용이 기대된다. 신규 가맹점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음식점 명인이 운영하는 전통음식 체험장을 비롯해 무등산생태탐방원, 스크린체 육시설, 예술의거리 소극장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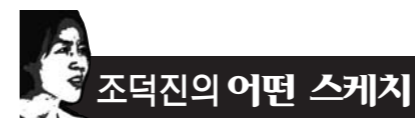
할인 서비스 가맹점도 광주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30% 현장할인), 롤러장 롤러홀릭(10% 할

인) 등으로 증가했다.

오는 6일 개막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도 50% 할인이 적용된다. 광주문화누리블로그(www.blog.naver.com/gjcfmunhwanuri)나 카카오톡플러스친구(ID: 광주문화누리)를 맺으면 더 많은 이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고객센터 1544-34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F1963’의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조덕진의 어떤 스케치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 부산의 핫 플레이스로 명성을 자랑하는 복합 문화공간 ‘F1963’은 공간의 명성에 스토리가 더해지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F1963’은 고려제강 부산 공장(Factory)의 창립 연도(1963)를 의미한다. ‘F1963’은 고려제강이라는 부산 기업이 7천600여명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에 350억원을 투입해 문화공간을 조성, 부산시민들에게 제공한 독특한 도시재생 모델이다. 재벌도 아닌 일반 기업이 수천평의 부지와 공장건물을 제공하고, 여기에 수백억원을 투입해 지역민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한 사례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F1963’이 자리한 자리한 부산 수영구는 센텀시티가 들어선 부산의 핫한 지역이다. 그 넓은 부지를 부동산 논벌이로 활용않고 초심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려는 시도에 마음이 숙여진다. 단순한 기증에 머물지 않고 수백억원을 투입하며 끝없이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투자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여타 도시재생 공간이 공공기관이 오래된 공간이나 건축물을 매입해 운영하는 것과 다르다. 고려제강이 공장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 부산시가 참여해 공공기금 40억원이 더해져 반관반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체 큰 그림과 절대 비용을 기업이 제공하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메세나, 사회공헌 성격이 더 크다.

‘F1963’은 도시재생의 새 모델,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 기업의 품격. 기업과 사회의 만남의 방식 등 다양한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은 고려제강의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과 사랑이 곳곳에 담겨있다. 회사

는 당초 이곳에 세계적 규모의 도서관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한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전시장과 음악홀, 책방, 갤러리 등 상업 문화 시설이 공존한 지금의 형태가 구성됐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눈길을 끄는 건 이 회사의 사람존중이다. ‘F1963’ 초기 단계부터 산업시설 시설 재생 부문에 자문을 한 경성대 강동진 교수에게 전해들은 기술의 강고함과 사람존중이 놀랍다.

이 회사가 ‘F1963’을 시작하기 전만해도 부산시민들도 이 기업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와이오로프 부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40여 개국에 공장 대 강동진 교수에게 전해들은 기술의 강고함과 사람존중이 놀랍다.

2016년 완공한 본사 건축물은 철강회사 건물이라기보다 미술관이 아닌사 싹게 공간을 멋진 공간을 자랑한다.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F1963’과 연계되는 분위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전문가를 존중하니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접하나 보다. 감탄과 존중이 절로 나왔다.

이번 만남은 한국언론재단 광주지사가 마련한 연수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전국에서 온 기자들은 ‘우리 지역엔 이런 기업 없나’, 감탄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